

# 평화·정의·바른미래 “선거제 개편하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중대선거구제 도입 승자 독식 보완 민주당·한국당 원내 영향력 축소 우려... 개편에 신중기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20대 국회 후반기에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정동영 대표가 당선 일선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평화당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고(故)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유지를 받들어 정치개혁에 사활을 걸겠다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힘을 받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은 크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국민 뜻을 정확히 반영하는 이른바 '민심 그대로'의 정치를 위해 유권자의 지지율과 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수 간 괴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는 취지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로 정당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인이 그에 모자라거나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

우는 방식이다. 또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선거구 면적을 확대되도록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해 승자독식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2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고 원내 300석 안에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1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우선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당 존재 이유는 선거제도 개혁에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한 어떤 것도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기조는 평화당과 거의 일치한

다. 지난 2주일간 고(故) 노회찬 전 원내대표 추모 기간을 보낸 이정미 대표는 6일 당무를 재개하면서 "노 원내대표의 평생 사명이었던 정치개혁을 위해 사활을 건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역시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인 편이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획득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이 20대 국회의 '사명'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국회 지도부의 입장에 긍정적이다. 문화상 의장은 지난 2일 국회방송과의 대담에서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정해지는 것은 민주주의 상식과도 같은 원칙"이라며 "거의 합의안이 있고 문제는 결단이다.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이 얼마나 호응하느냐가 실제 선거제도 개편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하지만 실제 선거제도가 개편된다면 거대 양당의 원내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미온적 태도를 예상하게

한다.

이런 가운데 과거 선거제도 개편에 부정적이었던 한국당은 최근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달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전향적인 입장을 통해 선거제도의 대변혁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아직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정하지는 않아 앞으로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당이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중한 기류다. 정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 정권 재창출까지 도모하기 위해선 소수당의 입지 강화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차가 갈리고 있어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문대통령, 10일 5부요인 초청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이날 오찬에는 문 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외교·안보상황과 함께 문재인 정부 2기의 국정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문화상 의장에 전화를 걸어 "협치를 강조한 국회의장 당선 소감이 시의적절했다. 국회 문제 잘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비준동의 합의 등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강조한 뒤 "이른 시일 안에 5부 요인들과 청와대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DJ, 친일·쿠데타 세력 옆에 모셔 죄송”

### 정동영 평화당 대표, 현충원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

민주당 정동영 대표 등 신임지도부는 출범 이틀날인 7일 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에 참배했다.

정대표와 유성엽·최경환·허영·민영삼 최고위원과 서진희 청년위원장, 양미강 여성위원장, 박주현 대변인, 장병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동작구 국립 현충원을 찾아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정대표는 참배 전 현충원 충훈문 방명록에 '조국을 위하여 목숨 바치신 선열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라고 적었다.

정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부끄럽다'고 적은 의미에 대해 "국립묘지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과 친일파들을 함께 모신다는 것과, 쿠데타 주역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말이었다"며 "우리가 잘못 모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당 지도부는 DJ 묘소를 참배할 때 DJ의 측근으로 통하는 동료동계 인사들과 함께 했다. 동료동계 인사들은 매주 화요일 DJ 묘소에 참배해오고 있다. 새 지도부가 현충원 일정을 화요일

로 잡은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로 돌아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선거제도 개혁 전도사'를 자처했다.

정대표는 김 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대 서비스는 연말까지 선거제도를 혁파하는 것"이라며 "이승만 시대부터 이어온 승자독식 제도를 버리고 다당제 합의를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표는 이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예방해서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함께 손잡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우당(友黨)'이라고 부른 정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정의당의 오랜 기원이자 평화당의 강령 1조"라며 "평화와 정의 연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견인하자"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 대표님과 20대 국회 안에 반드시 정치개혁을 성공시켰으면 한다"고 호응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두환 정권 제정 '국난극복기장령' 폐지

###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민주화 운동 '국난' 규정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난극복기장령(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난극복기장령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1980년 전후를 '국난기간'으로 규정하고, 당시 복무한 군인·군무원·공무원·주한 외국군인 등 모두 79만9693명에게 수여한 국난극복기장(國難克服記章)의 근거 법령이다. 이 법은 지난 1981년 3월2일 제정돼 제5공화국 출범일인 1981년 3월3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0월26일부터 계엄령 해제가 이뤄진 1981년 1월 24일까지를 '국난기간'으로 규정했다. 국난극복기장은 일종의 '기념장'이어서 부가 혜택은 없다.

국방부는 "기장령에서 국난기간으로 12·12 및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하고 있어 기장 명칭에 대한 역사적 오류가 있고, 기장 수여가 모두 종료돼 사문화된 국난극복기장령을 적폐정산 및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12·12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의 훈·포장·표창이 취소됐고, 불필요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갈등이 유발되는 등 법령 유지에 실익이 없어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국난극복기장령이 폐지됐으나, 기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

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고자 수입 타워크레인을 등록할 때는 제작연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 증명서류와 함께 제작증도 제출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등의 포상금 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 당권 도전장

### 신용현·김수민도 출마 선언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과 신용현·김수민 의원(비례)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9·2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던졌다.

바른정당 출신의 초선 정 의원은 이날 출마 회견에서 "바른미래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화학적 결합"이라며 "당의 진정한 통합을 통해 제1야당으로 발돋움하고,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개혁에도 앞장 서 특수활동비 폐지

등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고 소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진정한 동서화합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신·김 의원은 국민의당 시절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한 인물로 각각 여성과 청년 무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한편, 이날 신 의원 출마선언에는 권은희·채이배 의원과 김철근 대변인, 김정화 전 부대변인 등 국민의당 시절부터 안철수 전 대표의 통합 행보를 지지해온 인사들이 다수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용 2천)

▶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④ 전대정동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 법률 경매

① 경매교육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7월 개강 선착순 모집 ★

(주)대신경매

토지 기타 추천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 공단도로) ▶ 감평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토 69평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평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 공단도로) ▶ 감평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산단 공장용지 (1,922평) ▶ 감평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족동 (98평)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평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 주택	공장 / 기타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3평 건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9억3천	① 서구 병천동 현대빌라 (40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	① 광산구 월천동 (공장) 토1989평 건2,400평 ▶ 감평가 68억 → 최저 47억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38평 건272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7억2천	② 광산구 수원지구 수원리채 (20평) ▶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2천	② 광산구 오성동 (공장) 토500평 건528평 ▶ 감평가 12억 → 최저 9억9천
③ 서구 치평동 (3층상가) 103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③ 북구 운암동 현대빌라 (25평) ▶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1억2천	③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10평 건237평 ▶ 감평가 12억 → 최저가 8억4천
④ 북구 용봉동 (2층중 6층) 117평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④ 첨단지구 호반베르디움 (25평) ▶ 감평가 3억5천 → 최저 3억5천	④ 전남 장성 북 (공장) 토510평 건176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9천
⑤ 북구 영안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	⑤ 광산구 운암동 남영아파트 (24평) ▶ 감평가 1억6천 → 최저 1억2천	⑤ 남구 백운동 (빌라) 토66평 건145평 ▶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함 (경매 직원,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